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봉축하는 음악회가 곳곳에서 열린다. 사진은 7일 열린 해인사 음악법회 '화엄만다라'. 해인사 1200년 역사 이래 처음 열린 음악법회에서는 70여명의 스님들이 한국·인도·중국·일본 불교음악가와 함께 공연했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봉축에 물이 한껏 올랐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주말에 펼쳐지는 산사음악회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5월 15일 오후 3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축 문화마당 음악회'를 진행한다. 우선 어린이·어머니·거사회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국악인 최진숙씨, 대중가수 임지훈씨·한영애씨 무대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조계사 무용단의 불교무용 공연도 펼쳐진다.(02-732-2115)

서울 봉은사의 '나눔으로 하나되는 작은 음악회'는 5월 15일 저녁 8시부터 열린다. 타악그룹 '두드락'의 타악 연주로 시작된다. 퓨전국악그룹 '소리'는 '대장금 주제곡'과 전통민요 '천안삼거리' 등을 연주한다. '경희 5중주단'과 테너 강두석, 소프라노 박진성씨 등의 무대에 이어, 5월 1일 단기출가한 봉은사 등자승 10명 탠스 무대도 마련된다.(02-511-6070)

부산 성암사는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봉축음악회를 연다. 불교방송 前이나은씨가 준석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서는 성암사 신도이자 불자가수로 유명한 남진·변혜림씨를 비롯해 경기민요명장 이호연씨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또한 성암사 신도들의 사물놀이·학춤 공연 등이 이어

질 예정이다.(051-635-3744) 테마가 있는 음악회도 다수 마련됐다. 서울 도봉사는 5월 15일 오후 7시 '아빠들을 위한 콘서트'를 연다. '사랑하는 아빠!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7080(70-80년대 학번)의 분위기를 함께 할 수 있는 한영애·

리는 여성보컬 3인이 출연해 예솔도시에서의 봉축회를 들을 예정이다. 정릉 스님과 영월암 합창단 무대도 준비돼 있다.(031-635-3457)

봉화 청량사는 5월 14일 오후 7시 언더그라운드 포크뮤지션인 이종만씨를 비롯한 좋은 벗 풍경소리의 뮤지션들, 그리고 청량사의 예인(藝人)들이 '감사'를 주제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054-672-1446)

부산 삼광사는 APEC 성공기원 봉축음악제를 열 예정이다. 5월 13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음악제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산 바다 해국악단'이 '영산회상' 가운데 열בל타령을 연주하고, 티벳의 명상음악가 나왕게츠크이 불교명상음악을 선보인다. 또한 안지환·김혜연 등의 대중가수 무대, 각 지역 사찰합창단의 합창 무대도 준비돼 있다.(051-808-7111)

부처님오신날 이후에도 봉축음악제는 계속된다. 하동 쌍계사는 5월 20일 오후 7시 봉축을 회향하는 잔잔한 산사음악회 '진공묘유(眞空妙有)'를 연다. 진정한 '진공'을 주제로 마련되는 1부에서는 불전사물의 법음을 선보이고 나왕게츠크의 피리연주가 이어진다. 더불어 생동하는 삶 '묘유'의 주제로 열리는 2부에서는 대중가수 제기를 부른 이안, 설운도, 고려대 노래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055-883-1901)

간신재 기자 thaiswby@buddhapia.com

### 조계사 삼광사 청량사 영월암 등 준비 한창 명상·무용·가요·사물 만남... 볼거리 풍성



지년해 9월 4~5일 조계사에서 열린 예술축제페(FAM·Folk and Modern).

한울·신효범·신현대·백미현 등의 뮤지션이 대거 출연한다. 뉴트리 팝스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가 이들 노래의 맛을 더할 예정이다.(02-954-1112)

이천 영월암은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한 봉축음악회를 기획했다. 15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음악회에는 라이브와 맨발의 가수로 알려진 이은미,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가정력과 음악성으로 주목받는 신인가수 적우 등 대중적 인기를 누

는 여성보컬 3인이 출연해 예솔도시에서의 봉축회를 들을 예정이다. 정릉 스님과 영월암 합창단 무대도 준비돼 있다.(031-635-3457)

## 전통 선묘법에 현대적 기법 가미

### 고영을 승광사 불화展(승광사 성보박물관-7월 31일까지)

화려한 채색과 꼼꼼한 선묘로 독특한 회화미를 구축하고 있는 불화가 고영을씨가 9번째 행화전을 승광사 성보박물관에서 7월 31일까지 연다.

구봉 스님에게 사사한 그는 25년간 탕화속에서 독창성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다. 이번 노력속에서 탄생한 그의 작품들은 석채(石彩)와 니금(泥金), 경명주사 등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의 불화가 세상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고려·조선불화의 색채와 선

묘법에 바탕을 두면서 화면배치나 구성 방식 등은 현대적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의 작품 대부분은 어둡거나 무겁기 보다는 화사하고 밝은 채색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양화 캔버스와 유사한 모시를 즐겨 쓰고, 쪽물이나 바탕 염색을 단색보다는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갈아 놓은 위에 니금 선묘를 살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비롯해 '약사여래불' '화엄경 변상도' '노사나불' 등 30여점이 벽에 걸



고영을 작 '관세음보살 보문품'.

린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탕화 작품 외에 '천불전립' '독도는 우리땅' 등 '세상 이야기'를 주제로 한 판화작품도 선보인다. (061)755-0108 김주일 기자

## 일제강점기 충북문화재 유리원판 사진 공개

### 국립청주박물관(6월 26일까지)

불교 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국립청주박물관은 6월 2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사진을 공개하는 '사진으로 보는 충북문화재의 옛 모습-1910-1930년대' 특별전을 연다. 유리원판 사진은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가 우리 민족 지배를 위해 촬영한 문화·생활 전반에 이르는 사진 자료로, 이번 전시에서는 1910년대에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 중 충북지역 유형문화재와 관련한 사진자료 100여점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과거의 사진과 최근의 모습을 함께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주사 대웅보전' '덕주사 극락전' 등 불교건축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고,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촬영한 사진도 비교 전시했다. '충주 정토사지' 등 현재 볼 수 없는



1912년 촬영한 덕주사 극락전 모습(왼쪽).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오른쪽).



고 있다. '법주사 대웅보전' '덕주사 극락전' 등 불교건축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고,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촬영한 사진도 비교 전시했다. '충주 정토사지' 등 현재 볼 수 없는

유적의 과거 모습을 비롯해, '충주 미륵리사지' 등과 같이 지금은 형태가 바뀐 문화재의 이전 모델도 살펴볼 수 있다. (043)252-0710 강신재 기자

## 불두 형상화한 실험적 작품 선봬

### 구진경 개인展(인사동 갤러리 우림-5월 11~17일)

고정되어 굳어버린 의미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미(美)와 성(聖)의 극치를 표현한 불화(佛畵)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려불화의 섬세한 필치와 유려한 색감도 세월이 지나면 '예상되는 아름다움'의 틀 속에 묻혀버리기 마련이다. 전통의 현대화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까닭이 설명된다.

5월 11~17일 인사동 갤러리 우림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여는 작가 구진경씨는 불교미술의 현대화를 시도하는 작가 가운데 하나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세계 각국의 불두(佛頭)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 '향(香)' 등을 비롯해 전통불화의 형태에 파격을 시도한 실험적인 작품을 10여 점 선보인다.

그가 파격의 주제로 삼은 것은 디지털 프린트. 현존하는 예술작품 이미지에 그래픽 작업을 가한 것을 출력해 작품에 그대로 응용했다.

구씨는 "전래의 불교경전을 도해한 목판화 혹은 흑백의 탁본기법을 모티브로 한 흑백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방색으로 수놓은 공을 달아놓음으로써 평면성에 공간성을 가미한 것도 특징이다. 전방위를 아우르는 오방색의 입체형태를 통해 우주 법계에 두루한 불법을 형상화했다.

이번 전시에는 새로운 형태의 불화 이외에도 구씨가 전통 불교회화 양식, 특히 고려불화의 표현양식을 충실히 따라 그린



구진경 작 '香'.

수월관음도 등도 5점 공개된다. 구진경씨는 "일반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불화를 선보이고 싶었다"며 "사찰의 법당, 가정집의 한 귀퉁이 벽면, 도심 한복판 빌딩 그 어느 곳에도 어울리는 불화가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733-3788 강신재 기자

# (사)大韓佛敎 曹洞宗 任員

佛紀 2549年(2005年 5월 4일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宗團 幹部 스님들의 職責을 公告합니다.

宗正 尹智明 副宗正 催諸空

宗正司書室長 釋光慧

僧正院長：韓春潭 僧正委員：催圓峰, 朴智雲, 安松峰, 鄭戒云, 陳性雲, 朱禹泉(無順)

- |          |            |                |                |
|----------|------------|----------------|----------------|
| 總務院長 朴心月 | 監察院長 黃德牛   | 서울教區宗務院長 金德龍   | 中央宗會議員(無順) 金統元 |
| 副院長 宋德性  | 中央宗會議長 禹海倫 | 京畿教區宗務院長 趙大法   | 釋行文            |
| 企劃室長 金統元 | 中央宗會議長 安行照 | 江原1教區宗務院長 李萬慧  | 趙大法            |
| 事務總長 金法空 | 國際文化院長 宋月岩 | 永東教區宗務院長 鄭慧緣   | 鄭慧緣            |
| 教務部長 釋光慧 | 禪院副院長 趙法晉  | 忠北教區宗務院長 金日長   | 安行悟            |
| 財務部長 李法蓮 | 中央律院長 元雲潭  | 慶北教區宗務院長 朴雲鶴   | 嚴法華            |
| 糾正部長 嚴法華 | 護法院長 成慧泉   | 慶南中部教區宗務院長 梁海日 | 梁海日            |
| 教育部長 張顯空 | 護法副院長 朴慧法  | 蔚山教區宗務院長 朴海月   | 安志遠            |
|          | 調查部長 林行恩   | 慶南西部教區宗務院長 黃法光 | 朴海月            |
|          |            | 釜山教區宗務院長 鄭德正   | 李行緣            |
|          |            |                | 許行滿            |

### 대한불교 조동종 중흥주석사찰 삼각산 청련사

주지 지명(덕찬)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 FAX 02)379-6938

### 대한불교 조동종 부원장주석사찰 봉계산 우암사

주지 덕성 사부대중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 FAX 02)2607-6155

### 대한불교 조동종 사무총장주석사찰 옥불 금룡사

주지 법공 덕룡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261-28 TEL 02)383-3346

### 대한불교 조동종 감찰원장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주지 대은 사부대중일동

■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TEL 02)938-1405

###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위원주석사찰 추음산 금강사

주지 달제(지운)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 2리 128-1 TEL 031)773-4747

### 대한불교 조동종 사무총장주석사찰 아미타불도량 행천사

주지 이룡 행천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43 TEL 02)387-0101

- |         |          |         |         |         |
|---------|----------|---------|---------|---------|
| 회장 최영환  | 권석조      | 후원회 최윤희 | 산학회 김미금 | 자비회 최계순 |
| 상조회 권석조 | 지정회 이동현  | 홍보부 김경렬 | 연회회 홍준호 | 정계순 김원희 |
| 달마회 정하회 | 홍보부 김경렬  | 홍보부 김경렬 | 문사회 박준호 | 정계순 김원희 |
| 관동회 김태수 | 해의성자 홍경교 | 홍보부 김경렬 | 산학회 김미금 | 정계순 김원희 |